



원고 집필 의뢰서

집필자님께

늘 건강하시고 맥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학회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2016년 12월호를 <2016년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이라는 주제로 기획특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집필을 의뢰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원고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출내용 :

- 1) 원고(A4, 4~6매까지 가능, 11폰트 기준/ 원고에 영문제목, 최근 집필자 사진 등 포함)
- 2) 집필자 소개

2. 제출마감 : **2016년 10월 27일(목)까지**

3. 게재월호 : 대한건축학회지 '건축 建築' 2016년 12월호(2016년 11월 21일 인쇄예정)

4. 관련문의

- 1) 특집주간 : 김성홍(서울시립대 교수, 010-7724-6353, shkim@uos.ac.kr)
- 2) 편집담당 : 박인자(02-525-1841 내선206, 010-2360-3579, pj@aik.or.kr)

5. 기타사항 :

- 1) 본 학회에서는 A4 1매당 20,000원의 원고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 개인정보동의서(비회원에 한함)를 받고 있습니다.
- 2) 제출된 원고의 저작권은 게재 후 본 학회에 귀속되며,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원문서비스 및 누리미디어에서 유료 제공됩니다.

※별첨 : 1) 집필진 리스트 1부

2) 원고 템플릿 1부

3) 집필자 소개양식 1부. 끝.

2016년 9월 19일

대한건축학회 회지편집위원회

2016년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특집주간 : 김성홍(서울시립대 교수)

'용적률 게임'을 통해본 한국건축과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관에 대한 시선들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 and Society Seen Through "The FAR Game,"
and the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Korean Pavilion, 2016 Venice Biennale

'비엔날레(biennale)'는 이탈리아어로 2년에 한번 열리는 행사라는 뜻이다. 2016년 현재 전 세계에는 비엔날레의 대표 격인 '베니스비엔날레'를 포함하여 수백여 개의 각종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다. 그 목적, 형식, 내용은 하나의 틀로 일반화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광주비엔날레'와 2017년 개최될 '서울건축도시비엔날레'도 그 중 하나다. 수백여 개의 비엔날레 중에서 베니스비엔날레를 가장 주목하는 것은 1895년 처음 시작된 후 120년 동안 영향력과 파급력을 끊임없이 확장해왔기 때문이다.

베니스비엔날레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춤, 건축 등 여러 장르를 아우르지만, 그 중에서도 미술전, 건축전, 영화제가 3대 행사로 꼽힌다. 미술은 1895년부터 홀수년, 영화는 1934년부터 매년, 건축은 1980년부터 짝수년에 열리고 있다. 건축전은 총감독이 직접 기획하는 국제전(International Exhibition)과 전 세계 60~80여개 국가가 기획하는 국가관(National Pavilions) 전시, 비엔날레 재단의 승인을 통해 진행되는 병행 전시(Collateral Events)로 구성된다. 현재 자르디니(Gardini) 공원 내에 상설국가관을 갖고 있는 국가는 30개국뿐이다. 나머지 국가는 아르세날레(Arsenale) 등 장소를 빌어 전시를 해야 한다. 아시아에서 한국은 일본에 이어 상설 국가관을 짓는 막차를 탈수 있었다.

한국이 건축전에 참여한 것은, 자르디니에 상설 국가관을 세우고 난 이듬해인 1996년 (강석원 커미셔너, Myungdong Cathedral and National Museum of Korea Projects) 부터였다. 그 후 2000년 (김석철 커미셔너, Seoul: City of Ethics, City of Nature), 2002년 (김종성 커미셔너, Reality to Next Society), 2004년 (정기용 커미셔너, City of the Bang), 2006년 (조성룡 커미셔너, Perman n Stant), 2008년 (승효상 커미셔너, Critical Topic: Pajubookcity as Culturescape), 2010년 (권문성 커미셔너, RE.PLACING: Documentary of Changing Metropolis Seoul), 2012년 (김병윤 커미셔너, Walk in Architecture)까지 한국관은 작가와 작품을 소재로 한 집합전의 성격이 강한 전시를 선보였다. 2014년 (조민석 커미셔너, Crow's Eye View: The Korean Peninsula)에는 한국관이 황금사자상을 수상함으로써 분단 한국의 문제가 전 세계적 의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16년은 한국관이 건축전에 참여한지 10번째가 되는 해이자, 예술감독(큐레이터)과 커미셔너(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KO)를 분리한 첫해이다. 전체 주제인 '전선에서 알리다(Reporting from the Front)'에 대응하여, 한국관은 한국사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양'과 '크기'에 욕망을 사회경제적, 일상적, 창의적 관점에서 조명한, '용적률 게임: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 The FAR (Floor Area Ratio) Game: Constraints Sparking Creativity'을 주제로 내걸었다. 김성홍 예술감독, 신은기(인천대 교수), 안기현(한양대 교수), 김승범(브이더블유랩 대표), 정이삭(에이코랩 대표), 정다운(코레건축 실장) 공동큐레이터가 기획자와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참여작가로 전시를

만들었다. 주제에 따라 36개의 건축물(건축가)을 선정하고 분석과 시각화 작업을 했으며, 강성은, 백승우, 정연두, 신경섭, 정진열 등 시각예술작가와 그래픽 디자이너를 초대하여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했다.

한국관은 지난 5월 28일 개전 후 국내외 언론과 건축문화계의 호평과 비평을 동시에 받았다. 국내 매체가 다룬 내용은 이번 특집에서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해외 매체가 다룬 내용이 궁금한 독자는 온라인 검색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New York Times, The Guardian, CNN Style, Wallpaper, Elle Décor, Il Giornale dell'Architettura, Bau Netz, Corriere della Sera, Vogue Italia, La Repubblica, The Straits Times, Architizer, Arch Daily Online, Archinect, Arcspace Online, Architect (The Journal of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World Architect Online, Le courrier de l'architecte Online, Bustler, e-architect Online, Artnet Online, Art Daily Online, Perspective Online, The Venice Insider Online, AECCafé Online 등]

이번 특집은 언론 매체와 건축지가 다루지 못했던, 한국관에 얽힌 뒷이야기를 담고자 기획했다. 필진은 크게 세 그룹으로 구성했다. 첫째, 이전 전시를 직접 만든 다섯 명의 공동큐레이터들로부터 주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 준비과정, 개전 후에 느낀 점들을 듣기로 하였다. 둘째, 이번 전시의 주제에 공감하고 작품을 제공한 36명의 건축가 중 세 명의 참여건축가로부터 주제와 자신의 작업과의 관계, 이번 전시에 대한 거리를 둔 평가를 들어보기로 했다. 셋째, 한국관을 직접 방문한 두 명의 건축학자와 두 명의 큐레이터들로부터 베니스비엔날레의 전체 틀에서 본 한국관의 주제 해석과 전시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고자 했다. 넷째, 이번 전시 도록에 글을 기고한 두 분의 해외 건축학자, 건축가로부터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건축과 한국관을 담기로 하였다. 대부분의 필자는 베니스의 한국관을 직접 관람했다.

'용적률 게임'은 욕망에 사로잡힌 한국인의 '자화상'이자, 건축의 본질을 찾고 혁신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한국건축가들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한국관은 이를 설명하기 위한 방대한 실증적 자료를 등장시켰다. 가치판단을 유보한 예술작가들의 눈에 투영된 욕망의 도시와 건축도 그대로 노출시켰다. 36개 건축물은 건축가의 개인 언어(lexicon)는 소거시키고, 숨은 논리(logic)와 전략(strategy)을 읽으려고 했다. 이에 공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용적률이라는 지수(指數)로 한국건축의 전선을 해부한 것에 불편한 건축인들이 있을 것이다.

대한건축학회의 기관지 '건축'이 한국관을 초대하여 많은 지면을 내어준 준 것은 비엔날레를 포함한 건축전이 '작가'와 '작품'을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 건축 학술계의 의제를 발굴, 논의, 축적하는 장으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용적률 게임'은 서울에서 귀국전을 갖는다. 밖에서 던진 화두 '용적률 게임'이 안에서 좀 더 깊고 넓은 담론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특집을 기획하였다.

<필진 리스트>

김성홍, 서울시립대 교수, 2016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

외부전문가: 학자, 건축가, 큐레이터

1. John Peponis, Professor, Georgia Tech, 2016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Counselor
2. 정다영,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3. 심소미 독립큐레이터
4. 서정일,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5. 남수현,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참여건축가

6. 김성우, NEED Architecture 대표
7. 문주호, 경계없는작업실 대표
8. 박진희, SsD 대표

한국관 공동큐레이터

9. 안기현, 한양대 교수, 2016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Associate Curator
10. 신은기, 인천대 교수, 2016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Associate Curator
11. 김승범, 브이더블유랩 대표, 2016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Associate Curator
12. 정이삭, 에이코랩 대표, 2016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Associate Curator
13. 정다은, 코레건축 실장, 2016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사무국장/ Assistant Curator

미확정

14. Julian Worrall, University of Adelaide